

# 전남문예재단 레지던시, 국제교류역 '톡톡'

전남문예재단이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국제예술교류의 역할을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전남문예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담양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과 대담 문화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수이 역사박물관의 교류는 단순한 작가 교류의 차원을 넘어 향후 양국의 문화 예술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성과는 현재 전국적으로 50여 개에 달하는 국공립 레지던시 중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1995년 청원 미술창작마을을 시작으로 국내에 소개된 레지던시 사업은 그동안 단순한 창작지원에 그쳐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9~21일 2박3일 일정으로 대담미술관 정희남 관장 등과 함께 대담 단수이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 교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둘러봤다.

대담미술관과 단수이 역사박물관은 올해 각각 전남문예재단이 지원하는 '대담예술가의 집'과 대담 문화부가 지원하는 'Hot Spring Project'라는 이름으로 모두 6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교류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단수이 역사박물관은 단수이 지역 근대 문화유산, 유적, 박물관, 미술관 등을 총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문화기관이다.

두 기관은 한 기관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창작스튜디오, 창작지원비, 항공료, 전시지원비 등에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상당수의 국내 레지던시가 단순한 해외 작가 초청에 그친 것과 달리 국내 기관은 해외 작가들을 지원하고, 해외 기관은 국내 작가들을 지원하는 형태다.

## 담양 대담미술관-대담 단수이 역사박물관

단순한 창작지원·작가 교류 그치지 않고 스튜디오·전시지원비 등 수평적 관계 유지 양국 문화예술 협력 파트너십 구축 기여



왼쪽부터 우상린 작가, 정희남·엔진 라오 관장, 맨 오른쪽은 진시영 작가.

앞서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는 대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상린, 윤수정, 예이리 작가가 대담미술관에 머물면서 담양의 자연과 강, 사람, 문화 등을 토대로 작품을 선보인 뒤 귀국했다.

현재는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지난 14일부터 단수이에 머물면서 대담의 문화, 사람, 강 등을 토대로 작품을 구상중이며 이어 오는 11월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 작가, 설치미술가 이우현씨가 이곳에 입주할 예정이다.

진 작가는 단수이 지역의 강과 인근 역사적 건물을 둘러보면서 역사와 아픔 등을 조사 한 뒤 미디어아트로 담아낼 계획이다.

전시는 10월17일부터 옛 영국 물류회사의 창고를 개조해 만든 '더글라스 라프레이크 전시

장'에서 열린다.

특히 한국 작가들이 입주해 있는 기간에는 타이페이비엔날레(9월13일~2015년 1월4일)가 열리고 있어 국제미술계에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단수이 지역은 대담에서 근대화가 시발 된 곳으로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등에 의한 침탈의 아픔을 겪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단수이 지역에 산재한 근대문화유산에 예술을 입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두 기관의 교류는 대담에서도 드문 경우로,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국기간의 문화와 전통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단수이 역사박물관 엔진 라오 관장은 "단수이는 예술을 활용해 역사를 담은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에 있다"며 "향후 꾸준한 교류를 통해 전남과 대담 미술계가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지점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희남 관장은 "레지던시에 참여하고 있는 6명의 작가는 양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강과 숲 등 자연 경관을 살피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습득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동일한 주제에 대한 양국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가적 해석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류 프로그램이 성사되기까지는 진 작가와 우상린 작가의 역할이 컸다"며 "현재 각광받고 있는 아시안 현대미술 작가들 및 문화 예술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현대미술의 양상과 트렌드를 비교하고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수이(대담)=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10월17일부터 진시영 작가의 전시가 열릴 예정인 대담 단수이 '더글라스 라프레이크' 전시장. 이 전시장은 영국 물류회사의 창고를 개조해 만들었다.

# 제22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서정민씨 "무대서도... 강단에서도 전통 소리 계승 힘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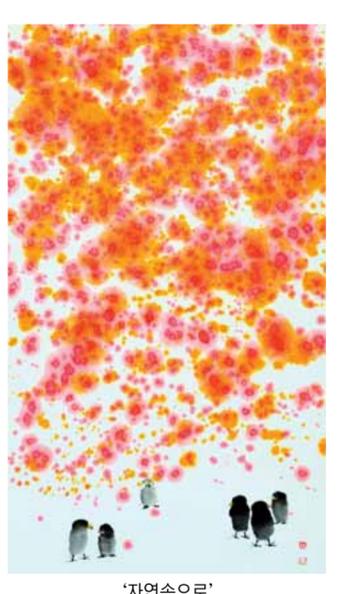


인터뷰를 시작하며 소감을 묻자 그녀는 말을 잊지 못한 채 눈물을 뿜었다. 정상의 문턱에서 자주 주저 않았던 4년간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씨는 지난해 임방울 국악제 명장부 준우수상을 수상했고, 전주대사습놀이에서는 명장부 차상을 받는 등 간발의 차로 대통령상에서 반반이 밀려났었다. "대통령상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울컥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동안 마음 고생했던 일들이 죽 지나가더라고요. 자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 떨어지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귀기울여 들을 줄 알게 됐어요." 서정민(34·경기도 남양주시)씨가 22일 광주문화회관에서 막을 내린 제22회 임방울국악제에서 판소리 명장부 대통령상(상금 2000만원·순금 40만)을 수상했다. 서씨는 이날 경연에서 동조제 '춘향가' 중 마지막 '재회' 부분을 불러 영예를 안았다. 전주 출신으로 8살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한 서씨는 전주예고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첫번째 졸업생이다. 전통예술원 예술사 및 예술원론사 과정을 마치고 한양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서씨는 이론과 실기를 모두 갖춘 재원으로 이날 주·안숙선 선생을 사사했다. "선생님들로부터 목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표현력에 대한 칭찬도 듣는 편입니다. 목소리가 맑다 보니 그늘진 부분을 표현하는 데 조금 힘들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씨는 완창 공연도 가졌다. 지난 2006년에는 '수궁가'를, 지난 2002년에는 '춘향가'를 완창했다. 또 올해는 동조제 '춘향가'를 지속적으로 공연하고 있다. 또 지난해까지는 전통 소리 그룹 '절대가인' 대표를 맡아 창작곡과 민요 등 다양한 우리 음악을 소개하기도 했다. "소리 공부를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부를 때마다 늘 새로움을 느껴요. 기분이야 상황 등에 따라 새로운 소리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판소리의 매력인 것 같아요. 무대에 서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르는 것에도 관심이 많아요. 우리 전통 소리를 알리고 계승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자연 속에서 살았네 박태후전, 515갤러리 10월 3일까지

문인화가 시인 박태후씨는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작가다. 자연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작가는 자연 속에서 파고들어 정원을 꾸렸고, 자연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다. 나주에 있는 죽설현은 그가 자연과 함께 만들어 온 사스런 정원으로, 박씨의 삶의 공간이자 창작의 센터이기도 하다. 작가가 손수 기와를 올려 만든 600m의 돌담길을 걷노라면 새들의 지저귀는 발길음에 따라 바뀌는 풍경으로 인해 눈과 귀가 아니 즐거울 수가 없다. 박씨가 자연을 평생의 소재로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515갤러리(관장 이승찬)는 10월 3일까지 '시인 박태후 초대전'을 연다. 작품에서는 작가가 손수 꾸민 죽설현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친다. 먹물의 힘찬 번짐은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이 되고, 색의 향연은 쏟아지는 꽃잎들의 찰나다. 박 작가가 가장 사랑하는 소재인 참새는 자연을 느끼게 하는 가장 소박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박 작가는 조선대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전남도 미술대전 특선 등 상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서예대전, 광주시전, 무등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지냈다. 문의 062-654-300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자연속으로'

**상상할수 없는 파격조건!! 동성노블리 특별분양!!**

전세가격 폭등!! 차라리 내집을 사자!! **용봉동 동성 노블리 3차**

11월 (예정) 중도금 무이자 공금연적 (㎡) 78/75 **선착순 마감임박**

한자리에서 북구의 모든 실속을 누리려!

- 1 실입주금 2천만원대(최소 금액으로 입주가능)
- 2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 3 용봉C 양방향 공사 예정(불편한 교통환경의 해소로 인한 미래까지 상승 요인)
- 4 전·월세 보증금으로 내집 마련(2,000~4,000만원대)
- 5 일곡청솔아파트 총 1,400세대 분양전환으로 인한 임대수요 풍부

062) **385-3080**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저금리 혜택!**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b>01 부동산 담보대출</b> 최저 3.5%~ 아파트, 주택, 상업, 공장, 내지, 차량, 전·월, 모빌 대출한도: 최고 20% (최대 10억) 상환방법: 원금/이자 / 대환대출 상환기간: 10년(연리 10%이상)부터 20년 구비서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연이자: 신용등급 0.95% (연이자 0.95%~1.2%)	<b>02 햇살론대출</b> 연이자 최고 2%만 원, 합입자금 최고 5천만원 대출한도: 신용등급에 따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최소 3개월 이상 근로자 대출기간: 원금 최고 20년 원 합입자금 최고 5천만원 대출금리: 연 0.01% (이전대출금리) 보통 금리: 대출금리 0.95% (연이자 0.95%~1.2%)	<b>03 아파트 전세 보증금대출</b> 전세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대출금리: 최저 4.0%~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상환방법: 원금/이자 (연리 10%이상)부터 20년 구비서류: 전세보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연이자: 신용등급	<b>04 저당담보, 직영인 전용주택 유한 신용대출</b> 간편대출 절차로 최고 1억원 까지 가능 대출한도: 저당담보 및 직영인 전용 대출금리: 최저 1%만 원 대출기간: 최저 5년 특약: 대외 대출금리 추가 인하
--	---	---	--

**더 높은 이율 더 많은 비과세 혜택!**

정기예탁금	수시입출금 통장	정기적금
1년 2.85% 18개월 2.9% 3년 2.9%	최대 2.5% 단, 하루를 맡기면 일천예금 (금액에 따라 차등 혜택)	1년 3.1% 2년 3.2% 3년 3.3%

1인당 7,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223-7217, 223-7218